

제주사회복지신문

◇ 2020년 12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 전화:(064)702-3783~4 / 팩스:(064)702-3383 제158호

지역사회공헌 인정 7개 기업...복지부 등 주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가 공동주관하는 '2020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 제주 7개 기업과 기관이 선정됐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 내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한 기업, 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선정 기업과 기관은 다음과 같다.

-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대근)
- ▲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은숙)
- ▲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송병철)
- ▲ 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
- ▲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이육기)
- ▲ (주)제이디팜스(대표이사 고도호)
- ▲ (주)태신엔지니어링(대표 고태훈)

특히,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사회공헌부문 유공 단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2006년 '제주농협 행복나눔운동본부'를 발족해 소외된 이웃을



▲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드래곤시티 백두홀에서 열린 '2020 지역 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선정기업이 인정패를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복지부장관 표창 보증보험 지원·컨설팅 등 인센티브 지급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섬 속의 섬, 추자-마라 매력화 프로젝트', '삼춘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실천해왔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헌디 걸영 다니게 마음(취약계층 관절질환자 미충족 수요해소 및 안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은행은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김장김치, 제주육상 꿈나무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은 장학금전달, 노인복지시

설 계란 전달을 하고 있다.

제이디팜스는 제주도내 농가, 협회 등과 더불어 어려운 이웃에게 후원을 제공해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태신엔지니어링은 종합엔지니어링 회사로서 민간개발 사업분야 고객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인정패를 받은 기업·기관에게는 1년간 인정제 엠블럼 사용권한이 부여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보험 지원 및 컨설팅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다.

<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 신문으로 재도약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창간

제주사회복지신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7년 9월호를 시작으로 올해 12월호까지 총 158회 지면으로 발행된 제주사회복지신문을 2021년 3월부터 인터넷신문으로 발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3년 3개월 동안 제주지역 사회복지현장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독자 여러분께 전달한 제주사회복지신문은 제주사회복지 역사의 기록이자, 도민들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도모하는 촉매제였으며, 각 분야별 복지현장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제한된 지면과 발행주기로 인해 더 많은 소식과 정보를 시의성 있게 전달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창립 35주년을 맞는 2021년을 맞아 제주사회복지신문 발행방식의 전면적인 변화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사회복지신문의 인터넷신문 발행은 다양하고 정확한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복지현장의 소식을 생동감 있게 전달함으로써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3월, 인터넷신문으로 새롭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사회복지신문 발행인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고승화**

지면소개

- 종합 2면
- 사회복지소식 6면
- 학생·도박·중독·예방·교육·치유
- 지역사회봉사단 기획 탐방
- 자원 조례 발의
- 종합 3면
- 오피니언 7면
- "김장김치로 따뜻한 사랑 나눠요"
- 시론·칼럼·법률홈닥터

<나눔 참여기관·기업광고⑦>



티끌모아 태산
"자투리금액을
최대한
자유롭게!"



jBANK
저금통적금
3.0%
(1년제/최고연)

2019·2020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jBANK 저금통적금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1인 1계좌)
- 계약기간: 6개월, 12개월
- 가입금액: 최소 1원(상/월납입액 최고 50만원 이하)
- 저축방법: 이 예금의 저축 방법은 신규 시점 본인 명의의 입출금 계좌에서 1,000원, 10,000원, 100,000원 중 선택한 기준 금액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 신규 입출금 시 매일 정사되어 출금된 후 jBANK 저금통 적금으로 자동 입금되며, 갯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최고거래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저축이 가능

· jBANK 저금통 적금 이자율 (2020. 11. 12현재, 세전 연%)

계약기간	기본이자율	우대금리	최고금리
6개월	0.70%	최고 2.10%	최고 2.80%
12개월	0.90%	최고 2.10%	최고 3.00%

※ 신규입 당시 만입금 및 통폐합에 따라 이자율 적용

jBANK 저금통 적금 우대금리			
자투리 출금 계획 월 20만원 이하	중개계좌 1개월 내 입출금	신규 시 최소 30만원이상 복합상품 및 2개월 내 입출금	추천인 1명당 입출금률
0.8%	0.5%	0.5%	0.3%

우대금리: 아래 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최고 연 2.10% 우대 적용됩니다.

- (단, 계약기간 만기 전 종료 해지한 계약에 대하여 우대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음)
- 자투리 출금계획: 월간 50만원 이하 입출금 시 우대금리 적용 (연 0.80% 우대)
- 중개계좌: 계약기간 3개월간 계약서 및 적립서 제출(이보) 또는 jBANK 저금통적금 만기 시점까지 1개월 내 재신규시 우대금리 적용 (연 0.50% 우대)
- 신규가입 시점까지 적금 목표금액 최소 30만원 이상 설정하고, 적금 신규입출금부터 3개월 내 잔액이 목표금액 이상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 (연 0.50% 우대)
- 추천인 우대금리를 추천인 1명당 0.30%(최대 1인당 1명)까지, 최고 연 0.30% 우대
- ※ 신규 가입 시 적용되는 추천인 비율 추천인 본 상품 가입 시 입출금 모두 입출금에 따른 추천인 각각 우대금리 추천인 본 상품 및 다른 상품 적용 가능 기간은 계약 신규가입일로부터 계약기간 120일까 지 적용
- ※ 계약 종료 후 추천인 입출금에 따라 계약 종료 추천인 비율은 변동
- ※ (1, 2, 3)의 우대 이자율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만기해지 시 해당 우대 이자율을 지급하며 신규 시 해당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가 금리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예금보장법에 따라 예금보장공제기 보호되며, 보호되는 본 은행에 있는 권리의 모든 예금보장대상 금융상품에 한해서 소액의 이자율 한도에 1년당 '최고 50만원' 이하, 5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인터넷(www.jejubank.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업광고인 심의별 제2020-02-259의(심의일자 2020. 11. 16) [유효기간: 2020. 11. 16 ~ 2021. 12. 31]

2 제주사회복지신문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학생 도박 중독예방 교육·치유 지원 조례 발의 부공남 의원, 사이버도박 중독 예방 시책 등 담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 교육위원장은 지난달 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부공남 의원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도박 중독과 관련된 누적 조기발견 학생수는 1,587명이고, 누적 치료학생수는 642명으로 나타났다.(출처: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대한 노출이 많아지면서 도박 중독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이버도박 등의 예방을 위한 규정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예방교육과 위험군 학생에 대한 치유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해 아이들을 도박 중독으로부터 구제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제정하게 됐다.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을 위한 도교육

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예방교육 ▲사이버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전담기구 설치 ▲협력체계 구축 ▲도박 중독 치유 ▲도박예방·근절 문화 조성 ▲개인정보보호 등이 포함되고 있다.

부공남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대한 체계가 마련된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생들이 도박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관 사회서비스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달 19일 제주연구원 대강당에서 민·관 사회서비스 정보 공유시스템 시범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과 민간기관 간 사업·대상별 분절된 사회서비스 정보를 통합(공유)·연계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 사회보장정보원,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복지하나로 민관실무협의체 위원, 관

계공무원, 사회복지관 민간 사례관리사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민·관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과 지난해 11월 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도의 정보시스템 구축 목적 및 주요기능이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지역사회 민·관 플랫폼’과 유사함에 따라, 업무협약 이후 차세대정보시스템의 시스템 기능 개선 및 과제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 추진단에 총 7회에 걸쳐 68건의 의견을 제출했으며, 지난 6월 26일 1차 간담회를 통해 일부 시스템 기능 및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부와 공유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제주도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2021년까지 차세대 시스템 구축모형을 반영한 시스템을 임시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에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도우미 파견시설 모집

제주시는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도우미 파견시설을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파견형 사업인 이 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장애인, 노인, 아동 등 10개의 사회복지시설에 1명씩 1년 간 파견해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파견시설은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 및 개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이용·생활시설에 한한다.

사회복지시설도우미 파견 희망시설은 신청·접수 이후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자활근로대상자 취업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12월말 확정된다.

자활근로 인력 파견을 희망하는 시설에서는 제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 시설현황, 사업·채용계획서 등을 구비해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접수하면 된다.

단, 2020년 사회복지시설도우미 파견시설 중 자활근로 참여자를 2021년 미채용한 시설과 민간보육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자활근로 참여자 6명을 파견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이 단순 업무보조에서 탈피해 탈수급 촉진 및 일자리 제공 등 취업형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결혼이민여성 취업박람회 성황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개최된 ‘2020년 결혼이민여성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에서 15명의 결혼이민여성이 채용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사진> 제주YWCA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취업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방식과 온라인에 취약한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실시했다.

박람회 개최기간 동안 총 2,439명이 온라인 홈페이지에 방문해 117명이 구직사전등록을 신청했으며, 69명이 면접에 참여해 총 15명의 결혼이민여성이 기업에 채용될 예정이다.

또한, 분야별 21개 업체에서 1:1 화상면접과 취업컨설팅(이력서 컨설팅, 무료 증명사진촬영 등)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11월 기탁 현황

- ▲금강축산유통=돈육 266kg ▲유진상사=오뚜기식품 2,701개 ▲(주)쿵스도어 제주이도점=빵 485봉 ▲Jolie=식료품 258개 ▲강순옥=쌀 10kg, 생활용품 1개 ▲금강수산유통=냉동해물모듬 30봉 ▲김만덕 기념관=쌀 300kg ▲공양공양=돼지고기 22kg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한라양계=계란15구 240개 ▲턴킨도너츠 탑동점=빵 777봉 ▲텔문도=빵 50봉 ▲텔문도 로스터스=빵 376봉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 5,044개 ▲땅스부대찌개 노형점=두부 24kg, 냉동만두 6봉 ▲땅스부대찌개 삼화점=두부 24kg ▲뚜레쥬르 제주이도이동점=빵 609봉 ▲뚜레쥬르 제주탐라점=빵 606봉 ▲롯데제과=과자 13,502개 ▲모양=빵 188봉 ▲미인빵=빵 249봉 ▲비엔누아즈=빵 231봉 ▲세인트벨코리아=냉장식품 265개 ▲소민떡방=떡 124개 ▲손뜻모아봉사회=설탕 160kg ▲약속다방=쿠키 93봉 ▲우리상사=식료품 6개 ▲제주보리촌=보리빵 450개 ▲주인성=돼지등뼈 114kg ▲참새방앗간=떡 953개 ▲코시롱둘비=두부 100개 ▲픽스커피 공단점=빵 204봉 ▲해맑은 떡방=떡 264개

☐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10월 후원금 현황 (단위:원)

구분	후원금 수입	후원금 사용
재가결연후원	610,000	460,000
난치병환아후원	40,000	0
자원봉사후원	310,000	310,000
복지사업후원	985,000	934,420
푸드마켓후원	3,065,000	242,000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승화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 편집위원실 : (070)4726-8825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인 : 김성건
- 편집위원 : 김길웅 · 김범훈 · 한영조
- 편집기자 : 김승지
- 편집디자인 : 하늘출판인쇄

“김장김치로 따뜻한 사랑 나뉘요”

사회복지협의회...시설 56곳·저소득 가정 100가구 전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지난달 28일 사회복지협의회 앞마당에서 ‘2020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신한금융그룹(제주은행,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제주도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겨울철 김장김

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전 베스트봉사상 시상과 연합회장 표창 시상도 이뤄졌다. 베스트봉사상에는 문종순(작은세상봉사단)·홍숙자(온누리봉사회)·신현숙(좋은인연봉사회)·김월선(손뜻모아봉사회)·강순옥(꿈드림봉사회) 봉사자와 지역사회봉사단

해피유스스쿨이 선정됐다.

연합회장 표창은 강영명(작은세상봉사단)·이용덕(온누리봉사회)·현공식(좋은인연봉사회)·김성진(손뜻모아봉사회)·문공하(꿈드림봉사회) 봉사자가 받았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연합회 자원봉사자만 참여해 최소화했으며, 마스크와 손소독, 봉사자 간 거리두기, 발열체크 등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날 담근 김장김치 1000포기는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56곳에 장애인가정 및 홀로 사는 노인 100가구에 전달됐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장비 보급

제주특별자치도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낙상, 건강상 응급상황 예방 등을 위해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605대를 11월부터 보급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감지센서,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의 장비를 설치하는 서비스다.

이어, 장비 등을 통해 감지된 화재·활동량 등의 정보를 응급안전안심 운영시스템에 전송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서비스대상자는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자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에 속하는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맞춤형 복지서비스 대상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해당된다.

올해 도는 내구연한(5년) 초과로 노후 된 560대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추가 발굴된 대상자 45명에게 신규로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2021년까지 나머지 기존 장비(584대)도 차세대 장비로 교체하고 취약한 독거노인이 서비스 대상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해 신규대상자에게 2,200대를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이번 장비는 최신 ICT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태블릿 PC형태의 단말장치를 비롯해 최신 사양의 응급호출기, 활동량 감지기(심박·호흡) 등을 집안 구석구석에 설치하고 감지 센서들이 24시간 대상자의 활동을 확인한다.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추자면 현장나눔 푸드뱅크 운영



저소득 165 가구 주·부식류 기부식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가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는 지난 10월 30일, 추자면 일대에서 ‘추자면 현장나눔 푸드뱅크’를 운영했다. <사진>

‘현장나눔 푸드뱅크’란 기부식품 확보가 어려운 도서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민-관 협력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푸드뱅크 배분체계를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도

내 이웃에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날 추자면 현장나눔 푸드뱅크를 통해 추자면 저소득가구 165가구에 식품나눔상자(주·부식류)가 지원됐다.

기부식품은 이승윤 사쿠라호텔 대표의 후원을 통해 마련되었다.

고승화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힘겨운 환경에 놓여있다.”라며 “평소 기부식품 제공이 어려운 도서지역이 복지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전했다.

제주도푸드뱅크 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지난달 11일 협의회 바람소리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 2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이 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및 협의회 임직원 등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1~3분기 주요사업실적 보고와 4분기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로 진행됐다. 이밖에도 사랑의 열매 제주형 읍·면 식품나눔마켓 운영 및 긴급식품 푸드팩 지원사업(3년 사업)과 사랑나눔푸드마켓 애월분점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하반기 합동 정년 퇴임식 열린다

오는 23일 협의회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는 오는 12월 23일 협의회에서 ‘2020년도 하반기 합동 정년 퇴임식’을 개최한다.

이번 합동퇴임식은 사회

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실천을 위해 노력한 정년 퇴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해 사회복지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퇴임식은 제주들꽃합창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정년 퇴임자 소개, 축사, 퇴임사, 감사패 전달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합동퇴임식은 올해 첫 시작된 사업으로 지난 6월에는 6명의 퇴임자를 대상으로 개최됐다.

좋은인연봉사회 창립기념 행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좋은인연봉사회(회장 탁후남)는 지난달 18일 제주시 술정가든에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 날 기념식에서 정창익 회원(258시간 봉사활동)은 제주사회복지협의회장 감사패를 받았고, 강영수 회원

(90시간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연합회장 표창패를 수여 받았다.

탁후남 회장은 “코로나19로 방문 자원봉사활동이 어려워졌지만 20년 동안 변함없이 노력해준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더 많은 이웃들을 위해 함께 달려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4 제주사회복지신문

주민센터·우체국 장애인 접근성 5% '불과'

제주장애인인권포럼,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발표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김성완)은 지난달 12일 제주지역 1종근린생활시설인 주민자치센터와 우체국 84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링 결과 주민자치센터와 우체국은 장애인 등의 접근성에 있어 상당 부분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원서비스 및 편의제공' 항목에서 적합한 곳

은 단 5%에 불과했다. 우체국의 경우 점자안내책자가 비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수어통역이 제공되는 시설 또한 주민자치센터와 우체국 전체 총 84개소 중 22개소(26.1%)에 그쳤다. 더불어 휠체어의 편리한 진입을 위해서는 민원창구의 깊이가 0.45m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고 편의증진법은 정하고 있지만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은

21.4%에 불과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75%의 설치율 내에서도 적절한 안내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비율이 상당히 높아 최종적으로 해당 항목에서 적절하게 설치된 시설은 53.5%에 그쳤다. 건물 진입의 용이성을 살펴보는 '진입·출입'의 경우, 주출입구에 설치된 경사로의 기울기가 높아 휠체어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 25%에 달했고, 출입문의 유효폭은 모두 적절하였으나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시설이 22.6%에 달했다.

또한, 시설의 부적절한 설치뿐만 아니라 고장 상태로 신속한 수리가 진행되지 못했거나 비품을 쌓아놓는 등 관리 부주의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편의시설 모니터링 전체 조사항목별 결과〉

조사항목	적합성 여부	
	적절	부적절 및 미설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45(53.5%)	39(46.5%)
진입·출입	28(33.3%)	56(66.7%)
민원서비스 및 편의제공	4(5%)	80(95%)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화장실	8(9.5%)	76(90.5%)
엘리베이터	2	-

(참고: 엘리베이터는 민원실이 2층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제주희망협동조합 국무총리 표창

제주희망협동조합 고진석(37)이사가 지난달 12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주관하는 자활사업 제도화 20주년과 자산형성지원사업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사진>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가 수급자 자격을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근로 능력 정도에 따라 저소득층이 시장 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등의 자활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 일자



리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희망협동조합은 제주수놓음지역자활센터 배송사업단에서 시작했으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사회가치부문 장관상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달 26일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 페스티벌'에서 사회 가치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

CSR 필름 페스티벌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을 비롯해 학생, 일반인 등 개인이 사회적 책임 실천 현장을 영상으로 담아 공유하는 행사다.

이번에 출품한 작품은 우도 주민 의료권이용 향상 프로젝트 '우도 효도차-탑씨'다.



'우도 효도차-탑씨'는 총 85개의 출품작 중 국제표준 ISO 26000(국제표준화기구(ISO)가 발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기획의 창의성, 사회문제 중대성, 사회문제 해결, 작품성에서 심사위원단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청각·언어장애인 정보 접근성 증진도모



제주특별자치도와 (사)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회장 박춘근), 제주도농아복지관(관장 문성은)은 지난달 23일 도청 삼다홀에서 '청각·언어장애인 도정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으로 제주도가

제작하는 공식 소셜방송(유튜브 등) 영상에 수어통역서비스 제공과 홍보를 강화해 정보소외계층의 알 권리 충족 및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하게 된다.

도는 도정 주요 정책 브리핑, 홍보 영상물 제작에 수어통역서비스의 연계를 강

화하고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는 도가 수어 영상물 제작 시 수어통역을 적극 제공하며, 긴급브리핑 등 수어통역사 배치 요청이 있는 경우 최우선해 배치·지원한다.

또한 자체 홈페이지, SNS매체, SMS메시지 등을 통해 수어 콘텐츠 전파 및 확산에 적극 협력키로했다.

제주도농아복지관은 자체 홈페이지, SNS매체, SMS메시지 등 활용해 도에서 제작하는 수어 영상물, 브리핑 등의 전파 및 확산에 적극 협력해 많은 청각·언어장애인들에게 행정 정보가 신속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된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구체적인 정책개발 필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제주도민 529명(여성 317, 남성 212)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젠더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민무숙)에서 자기기입식 대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성별, 연령, 지역 고려한 표본추출

로 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준은 ±3.25% 수준이다.

실태조사 결과 제주도민이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수강경험이 응답자 전체의 절반(43.2%)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응답자의 10.6%는 정보

통신 윤리교육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결과,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조례 제·개정을 통한 디지털 성폭력 대응체계 구축 ▲디지털 성폭력 모니터링단 운영 ▲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 등이 정책 대안으로 제시됐다.

홍태욱·김홍수 봉사자 장관표창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 소속 온누리봉사자 홍태욱 자원봉사자<사진 위쪽>와 작은세상봉사단 김홍수 자원봉사자<사진 아래>가 '2020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과 '2020년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에서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홍태욱 자원봉사자는 18년 동안 주 1회 저소득가정과 홀로사는 노인에게 밀반찬 조리과 배달을 실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도모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및 말벗 활동을 통해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홍수 자원봉사자는 19



년 동안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목욕봉사와 식사보조, 말벗 등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저소득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소/식/마/당

(무순)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제주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소장 김산옥)는 지난달 4일 제주시청과 신산공원 일대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했다. 제주삼다수와 사랑의 열매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사랑에도 공부야 필요해!' 등의 문구와 OX 퀴즈판을 통해 다문화감수성 퀴즈를 풀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지시봉을 이용해 안전하게 진행됐다.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성금 기부



서귀포시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고경탁)는 지난달 13일 서귀포시청에서 지역 내 위기청소년을 위해 써달라며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소장 강은숙)에 성금 100만원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태엽 서귀포시장과 서귀포시청소년지도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으며, 전달받은 성금은 쉼터 청소년들이 안전한 생활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유대감 형성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미뤄졌던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인 '뚝뚝 만드는 생활공예' 프로그램을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송죽원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자원봉사자와 지역사회 유대감 형성에 나누주며 친밀감과 유대감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야기 자서전 쓰기 실시



사회복지법인 불교자비원 제주양로원(원장 김진우)은 12월까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의 지원으로, 이야기 자서전 쓰기 및 명상 프로그램(음악, 차, 향기)을 진행한다. 이야기 자서전 쓰기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해 개인 자서전으로 출간하는 사업이며, 명상은 숲길을 걸으며 음악 감상으로 마련된다.

겨울 의류 전달식 진행



성자현(원장 진유신)은 지난달 5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위원장 김양옥)에서 75만원 상당의 겨울 의류와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평소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설 장애인들을 위한 나눔의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통합돌봄 장애인 가족 행사 개최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이사장 최영열)는 제주시와 함께 지난달 7일 북촌돌하르방미술관에서 통합돌봄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뚝뚝 패밀리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개회식과 '함께 맞는 비'를 주제로 무지개 우산을 함께 피는 퍼포먼스, 힐링존, 체험존, 충전존의 활동으로 진행됐다.

서우봉해안가 환경정화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원장 송문환)은 지난달 16일 발달장애인 20여명과 함께 함덕 서우봉해안가 환경정화를 실시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환경정화는 바다에 버려진 미세플라스틱을 청소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미세플라스틱을 공예활동에 사용함으로써 재활용도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웃사랑 식품 기부 눈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 소속 손뜻모아봉사회(회장 최미경)는 지난달 9일 제주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사랑나눔 푸드마켓에 이웃사랑 식품 설탕 1kg 160개를 기부했다. 손뜻모아봉사회는 매년 사랑나눔 푸드마켓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날 전달받은 식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저소득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와 협의회 소속 자원봉사연합회는 지난달 15일 '2020년 자원봉사연합회 연합봉사활동'으로 도내 저소득가정 2가구(건입동, 삼도2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5개 봉사회 회원들이 참여해 지붕과 마룻바닥 보수, 도배 및 장판교체, 집안 내부 환경정비 등을 실시했다.

예초기·햄머드릴 지원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지선)은 지난달 9일 익명의 기부자에게 160만원 상당의 국산 예초기와 햄머 드릴 각 2개씩 지원받았다. 복지관 관계자는 "기부자는 계양전기(주)에서 생산한 전동공구 세트를 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해 주길 바라고, 어려운 시기에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을 위한 노력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정화 봉사활동 실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류지훈)은 최근 제주시 희망원(원장 이경근)을 방문해 환경정화 봉사활동과 생필품(세제, 화장지)을 전달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외부정원 조경수 정리와 잡초제거로 이뤄졌다. 공무원노동조합은 2016년부터 매해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봉사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슬기로운 집콕놀이 종료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지선)는 지난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램 '슬기로운 집콕놀이 2차' 활동을 종료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 6가정을 대상으로 각 가정에서 안전하게 놀이를 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실내 배드민턴, 사방치기 등 실내 체육활동과 피자, 쿠키 만들기 등 요리 활동으로 구성됐다.



지역사회봉사단 기획 탐방 ⑭

하나로국제예술단(문화·예술)

난타공연·안마...재능기부 봉사활동 '활발'



▲ 하나로국제예술단이 지난달 15일 하귀리 마을회관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 소속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나로국제예술단(단장 고승암)'은 지난 15일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마을회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어르

신들을 위한 장구난타공연과 안마, 단원들이 직접 만든 다육화분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하나로국제예술단은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 남편, 자녀)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40여 명의 단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예술단은 2011년 9월 설립된 후 제주도내 노인시설과 마을회관을 방문해 문화예술 공연과 치매예방을 위한 실버인지프로그램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해왔다.

특히, 올해 8월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는 등 지역사회에 꾸준한 봉사활동 실천을 통해 나눔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고승암 단장은 "계획했던 것보다 봉사활동을 많이 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이에 12월 동지를 맞아 지역주민들을 위한 팔죽나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공헌 네트워크 소식

코로나19 극복 200억원 쾌척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지난달 12일 교래리 소재 삼다수 공장에서 특별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제주도에 특별기부금 200억원을 전달했다. <사진> 이날 기부금 전달식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제주도개발공사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정학 사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의 위기 속에서 도민들로부터 받아들

은에 일부나마 보답한 시간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200억원을 도에 기부해 코로나19로 인한 긴박한 재난의 위기 탈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어려울 때 도민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김만덕 나눔 정신을 실천한다는 자긍심이 개발공사 미래에 큰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서비스투자사업 91% 만족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달 5일부터 16일까지 제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6개 사업 이용자 880명을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에 대한 1:1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특성과 도민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제공함으로써

써 도민이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서비스 이용자는 주변 이웃이나 지인 소개(53.5%)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때 이동거리, 교통편 등 접근성(30.7%)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이용자의 91.1%가 만족했다고 응답했으며,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과 관련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 및 제공기간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절수술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제주대학교병원(원장 송병철)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승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는 오는 12월 '취약계층 관절수술 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4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

행한다. 이번 사업은 관절염 수술 대상자의 재활과 안전성 증대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실시됐다. 올해 9월에는 관절수술 대상자 2가구를 대상으로 문턱제거, 화장실 변경, 전체진입로 변경 등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사회적경제기업 소개 ③ 제주의망협동조합

이사·화물운송 서비스 제공

제주도내 환경파괴와 사회복지 문제 등과 같이 다양한 사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존재한다. 이에 지면을 통해 이들의 활동 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제주의망협동조합

제주의망협동조합(이사장 고진석)은 2013년 12월 '저소득계층 자립·자활을 목적으로 설립된 노동자(직원)협동조합이다. 지난 2011년 제주수놓음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출발해 2013년 12월 8명의 취약계층이 모여 법인

을 설립하고 제주시로부터 자활기업 인정을 받았다. 이후 2015년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2016년에는 장애인기업 등록, 2017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 현재는 17명의 고용인원 중 40% 이상 취약계층 고용을 실천하며 사람과 차량을 이용한 다양한 운송서비스 및 종합물류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희망나르미사업 '희망나르미 사업'은 정부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10kg)을 가구로 배송해주는 지원사

업이다. 제주의망협동조합은 전국 희망나르미(사협)조합원으로써 제주지역 희망나르미 배송사업에 참여하며 매월 제주도내 7천 가구 1,100포 나르미 배송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은 제주도내 6개 보건소에서 산부, 출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영양개선 지원사업이다. 제주의망협동조합에서는 매년 전자입찰을 통해 식품납품 및 소포장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희망이삿집 서비스 제주도로부터 이사화물운송주선 허가증을 발급 받았으며, 이사집전용 특수차량, 보관창고, 다수 이사집 전용 차량 등을 통해 이사서비스



▲ 관공서 이사 서비스 모습

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지역 자활센터협회와는 2017년부터 도내 자활사업참여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사비용 지원사업 수행업체로도 참여하고 있으며,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이사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조직 간 운송연대사업 한 살림생활,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도내 공기업 등

을 대상으로 운송주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살림생활과는 도내·외 정기적인 운송서비스를 협업하고 있으며,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상품을 제주와 도외로 연결 시켜주고 있다. 도내에서는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나눔사업에도 참여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나눔대상 가구에 삼다수를 배송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시론

<제주복지신문>, 종이신문 시대를 마감하며

2021년부터 <제주사회복지신문>이 인터넷 신문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2007년 월간으로 창간해 지난 12월 1일 제158호를 끝으로 종이신문을 마감했다. 1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이다.

제주 사회 초유의 복지신문

그간 편집위원의 한 사람으로 창간호부터 마지막 호까지 오랜 시간을 시종해 온 터라 오래 머물러 누가 되지 않을까 마음 쓰이기도 했다. 그러나 제주 사회 초유의 복지신문으로서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하느라 버둥거리며 작금에 이르렀음을 감히 토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범훈·한영조 위원과 더불어 이 자리에 남아 있어 일락서산하는 신문의 뒷모습을 대하는 감회 유별하다.

복지에 좋은 터전을 마련하고 복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준 것은 물론, 사회복지가 다사로운 봄별처럼 고르게 퍼져기를 소망하며, 계도하고 탐방

하고 더러는 조명하고 홍보했다. 그런 가운데 다소간 뿌듯한 성취감을 맛보게 됨은 우리의 타오르는 의욕이 이뤄 놓은 오롯한 성과였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10년 남짓한 시간의 흐름은 신문 위상에 작지 않은 변화의 물결로 다가왔다. 월간이라는 발행 주기가 시의성에 서 갖는 한계와 속도적 제한 등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좁고 어두운 시야에서 벗어나 넓고 밝은 세상으로 나아가 신문의 외연을 넓히고 내면을 응골차게 할 절체절명의 때를 맞게 됐다. 인터넷신문으로의 전환은 그런 대의를 갖는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설계 아래 홈페이지를 구축함으로써 본격적인 인터넷 신문의 기반을 견고히 다지게 되리라. 대놓고 얘기해 인터넷신문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매체들이 없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인터넷신문은 상대적으로 소규모라 방송이나 신문에 비해 눈 밖에 나게 되는 수도 있는 게 사실이다. 취재팀 빈약으로 양질의

기사를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취약점을 알고 있어, 빈 데를 채우고 약한 곳을 보정 보강함으로써 종이신문을 능가하는 신문으로 성장해 나아갈 것을 주문하고 싶다.

내년 3월 인터넷 신문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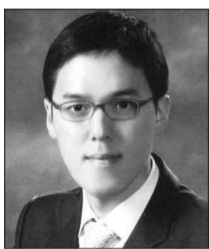
이를테면 <제주복지TV>와 연계한다면, 사회복지정보 소외 계층이 더 편리하게 정보를 폭넓게 누릴 수 있을 게 기대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과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것인데, 종이신문의 단점을 보완해 신속히 복지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한 관계자의 말에 박수를 보낸다.



김길웅 칼럼니스트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 77

확정일자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임대차와 관련하여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잘 받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법률상식이다. 보통은 이사를 한 날 바로 혹은 그 다음 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는 경우가 많다. 전입신고는 이사를 가서 새로운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 이를 알리는 의미임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확정일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라는 제도가 새로 생긴 것으로 아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오해다.

확정일자란 그 문서가 그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장치인데 공증기관(공증인이나 법원 공무원)이 신청인이 제시하는 문서에 기입한다. 공증기관에 문서를 제시하여 확정일자 청구를 하면 공증기관은 ‘확정일자부’라는 곳에 신청인의 주소, 성명, 문서명을 기재하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문서에 기입한 후 확정일자인(도장)을 찍고 그 안에 청구한 날짜를 기재한다. 이 제도는 우리 민법의 부칙 제3조에 근거가 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해 두었는데 더 정확히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법원 등 기소에 가서 그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아 둔다면 그 날짜에 해당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

이 남게 된다.

원래는 법원이나 공증사무소의 업무이고 보통은 법원 내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민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임대차에 관하여 특별하게 접근성이 높은 행정기관에서도 처리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을 방문하면 되고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칼럼

숲에서 즐기는 오감 행복

최근 제주도의 숲과 오름에는 사람으로 가득하다. 아마 코로나 19로 지친 심신을 숲에서 풀어보겠다는 마음이라 생각된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은 숲에 가면 행복하고, 편안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숲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숲속에서의 여러 활동을 통하여 쾌적함을 느끼고, 인지적, 정서적 회복 능력이 향상되며,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생긴 것이 바로 숲 힐링(산림치유)의 개념이다.

즉, 숲 치유란 숲에 존재하는 경관, 소리, 향기, 음이온, 먹거리, 빛 등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이다.

특히 우리 몸의 오감을 활용하면 숲의 치유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 간단하게 오감을 활용한 힐링 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눈으로 보는 시각은 오감중 사물에 대한 감각적 인지력이 87%로 매우 중요한 감각이며, 자연이 주는 시각적 효과는 우리의 뇌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초록색의 자연경관을 감상하게 되면 뇌의 알파파 진폭이 높아져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세로토닌(serotonin)” 양의 증가되어 마음에 안정감을 준다고 한다.

다양한 환경요소로 인체 면역력 높여

둘째, 좋은 향기를 맡는 것은 다른 어떤 종류의 감각보다 덜 자극적이면서 가장 낭만적인 즐거움을 준다. 숲에서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숲의 향기가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마음의 안정과 쾌적감을 주기 때문이다.

셋째, 숲에 가면 다양한 새소리, 벌레소리, 물소리, 바람 소리 등 자연의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준다. 눈을 감고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몸과 마음이 자연과 동화되는 느낌이 들면서 심신의 안정된다.

넷째, 숲에서 꽃과 나무를 감상하기도 하지만 가끔 나무를 만지기도 하면서, 촉각을 통해 숲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나무에 등을 대고 앉아 나무와 교감을 하고, 그 교감으로 호흡리듬이 바뀌고, 고통과 통증이 사라지며 소화기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각은 오감중 인간의 생리적인 즐거움을 가장 극대화시켜 주는 감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숲에서도 산나물, 산열매, 버섯류, 도라지, 더덕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미각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제 숲에 가면 무작정 걷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활짝 열고, 여유롭게 숲을 즐기면 숲이 주는 치유 효과를 충분히 맛볼 수 있다.



현인숙 제주한라대 산학협력중점 교수



2021. 3월 인터넷 신문 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지면으로 발행된 제주사회복지신문 을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7.09 ~ 2020.12, 총 158호)

